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포함)사업 심의 총평

1. 장르 : 무용

-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 사업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4년12월 12일(목) 09:30~13: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승일, 김현정, 문영철, 심정민, 탁지현

2025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은 문화예술분야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술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장예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현장예술인력은 연수단원(기획경영 및 창작실연)과 무대기술인턴으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관련 인력 고용과 그 비용 마련이 어려운 무용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주목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일정 기간 취업 기회, 현장 실무경험, 생활 안정을 제공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무용계의 선순환 구조를 촉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수단원(기획경영 및 창작실연)과 무대기술인턴을 통합하여 진행하게 되다 보니 여러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전 서류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대면 심의에서는 심의위원 5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확인하였으며, 각 단체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단체를 결정하였습니다. 등위, 점수, 적합성,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수단원(기획경영 및 창작실연)과 무대기술인턴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도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서류심의에서 기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부각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대한 필수 조건(상근인력 1명 이상 등)으로 행정심의를 거친 후, 단체의 인력 운영 적정성,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 예술 활동 성과와 노력, 차년도 활동 계획 등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예술적 수준, 무용계 기여도, 활동 지속성과 함께 지역 및 장애 활동 단체 고려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용계 현장에서 다각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단체로 하여금 행정적, 예술적, 기술적 인력 고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인력(직원) 입장에서는 양질의 전문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심의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단체가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의 경우 연수단원(기획경영 및 창작실연)과 무대기술인턴에 따라 책정된 지원액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각 단체에 배정되는 인력에 따라 최종 지원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전체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 서류, 대면 심의를 통해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정해진 순위와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용계 현장의 인력 확충으로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단체에게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우선적으로 결격이 없도록 모든 필수 사항을 충족하였으며, 신청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도가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 체계, 무용계 기여도, 활동 역량, 지역 거점, 장애인 채용 등이 두드러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무용계에서 사회적 기여, 창작적 역량, 인재 양성 등에 있어 많은 활동을 한 단체이더라도 상근인력 1명 이상 등 신청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적 점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인 지원 인력들의 근로를 위해선 단체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제출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무용계의 특성상 언론 등의 영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상근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른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함에도 일정 기간만 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확인되는 사례도 있는바 이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수단원에서 기획경영과 창작실연 구분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1명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상황에서는 어느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여건에서 활동하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는데 차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무대기술인턴지원 포함)’은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문화예술단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으로 주목도가 높습니다. 이후 선정 단체에서 적정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인력지원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 예술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지원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역시 요구되는 바입니다.

심의위원 일동